


한살림농부이야기

2021년  4월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소식지 38호

발행인 박용준 편집인 곽현용
편집부 한혁준 김진주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480-2, 3층
문의 043.716.0508
홈페이지 farm.hansalim.or.kr
이메일 farm@hansalim.or.kr
페이스북 facebook.com/hansalimfarmers



봉봉공동체 꿀벌이 자연수정하고, 자연천적으로 해충을 잡아가며, 찐찐 찐짜 유기재배하는 한살림 참외!

봄철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는 한살림 참외는 진짜 별다른 참외다. 한살림의 벌꿀을 생산하는 봉봉공동체에서 꿀벌을 데려와서 참외꽃 수정을 하게 한다. 제철도 모르고 시도 때도 없이 기승을 부리는 진딧물, 응애, 총채벌레는 '자연이 준 최고의 농약인 천적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그래서 경북 성주의 가야산공동체와 참살이공동체에서 생산되는 한살림 참외는 찐찐 찐짜 친환경 유기 참외다.

한살림 생산자가 키운 **참깨**로 한살림 참기름 생산의 **단초**를 만들자!



2020년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농업의 위기가 가중되는 해였다. 사상 유례가 없는 장마와 폭우는 농지와 작물에 큰 피해를 주어 농업 생산력이 크게 떨어졌다. 토양에 화학비료를 사용하거나 작물에 화학적인 방제를 하지 않는 한살림 생산지의 피해는 훨씬 컸다. 코로나로 인해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였지만, 시설재배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지 작물은 경영비의 증가와 생산 단수의 하락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50억여 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 친환경 농업을 고수하는 판단과 선택이 옳은 것인지, 하늘을 원망하면서도 생산자를 생각해주는 소비자가 있어 마음을 다잡는다.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생산자와 소비자 대표가 함께 모인 '벼 생산관련 회의'에서 기후위기 생산격려금의 의미를 담아 2020년산 벼 수매가격을 2019년 가격에서 7.2% 인상한 9만원(유기메벼, 조곡 40kg)으로 조정하였다. 잡곡의 경우, 2020년산부터 수매가격을 시중 가격에 연동하여 무농약은 130%, 유기는 140%로 적용하게 되면서 다소나마 잡곡 생산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수확량 자체가 확연히 줄어들면 생산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특히 참깨는 파종기와 수확기가 장마 시기와 겹치면서 습기에 약한 탓에 최악의 작황을 보였다. 조합원 공급용 친환경 참깨는 약정 생산자 41명 중에서 9명만이 출하를 할 수 있었고, 생산량은 계획량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라 외부수급을 통해 참기름 원료로 사용되는 국내산 참깨를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참깨 작황이 좋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천지인과 살림농산 한살림 참기름 가공생산지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물품을 이용하는 조합원들에게도 큰 불편이 따랐다. 이에 따라 외국산 참깨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가공용에 한하여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국산 농산물을 보호하고 장려하자는 한살

림의 원칙을 지키고, 국내산 참깨 생산기반을 살려 나가야 한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다. 또한 2020년 한살림 조합원들은 폭우피해를 겪고 망연자실해 있는 생산지에 성금을 모아 전달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소비자가 던지는 메시지는 한살림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2,200여 한살림 생산자가 참깨 수급 불안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같이 찾아달라는 것이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 1월 이사회에서는 참깨 생산과 참기름 공급상황을 공유하고, 조합원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2021년에 지역별 공동체별로 생산 목표량을 세우고 참깨를 생산하자고 마음을 모았다. 그리고 사업연합이 친환경 참기름과 국내산 한살림 참기름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세운 참깨 물량 50톤의 생산과 수급을 전국의 한살림 생산지에서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1년 3월 말 현재, 전국의 생산공동체와 생산자가 신청한 참깨 면적은 약 9만여 평이다. 추가되는 신청량을 포함할 경우, 전체 물량의 50%가 넘는 27톤 정도를 한살림 생산지에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족한 참깨는 생산자와 공동체가 인접한 이웃 농가와의 협약을 통해 생산, 수급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재배 방식은 단작, 이모작, 간작·혼작, 시설하우스 과채류 후작 재배 등 지역의 기후 여건과 생산 여건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였다. 참깨 가격은 시중 가격 연동방식을 적용하여, 유기 140%, 무농약 130%, 국내산 115% 가격으로 수매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중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에도 참깨 생산비를 반영하여 최저가격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한살림 공동체의 자율적인 참깨 재배 운동과 지역의 이웃 농가에 권면하는 방식을 통해 한살림 참기름 생산에 필요한 참깨가 안정적으로 생산,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살림 생산공동체 참여인증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한살림 참여인증은 조합원·생산자·실무자가 함께 참여하는 자주점검을 통해 생산공동체의 생산관리를 과정 중심으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한살림 독자인증체계를 말합니다.

2021년 참여인증 신청 지역은 강원, 경기, 충북, 전북 지역으로 총 8개 지역, 22개 공동체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참여인증에 참여하는 공동체는 공동체 월례회의를 통해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설명회는 5월초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명회 일정을 잡지 못한 공동체는 지역사무국을 통해 설명회 일정을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인증 기본절차

참여인증신청 → 자주관리 → 자주점검 → 인증승인 → 사후관리



3월 26일 진행된 초정공동체 참여인증교육

2021년 참여인증 신청지역

구역/연합회	신규 참여인증공동체	설명회 일자	비고
강원연합회	횡성 공근공동체	4월 6일	
	횡성 참나무공동체	5월 7일	
	원주공동체	4월 6일	
	강릉 하평들공동체		
경기권역	안성 고삼공동체	4월 8일	
	파주 천치보은공동체		
괴산연합회	괴산 칠성유기농공동체		
	정읍 한밭음공동체	3월 16일	지역사무국자체교육
전북연합회	진안장수 구량천공동체	3월 16일	지역사무국자체교육
	거북이공동체	3월 24일	
청주연합회	신촌공동체	4월 15일	
	초정공동체	3월 26일	
충북남부권역	한울공동체		
	대추골공동체		
충북북부연합회	단양 별방공동체	3월 29일	
	단양 삼태산공동체	3월 29일	
	음성공동체	4월 20일	
	제천 의림지공동체	4월 20일	
홍천연합회	서석공동체	4월 6일	
	어유포공동체		
	동홍천공동체		
	신시공동체	4월 9일	

충북북부연합회 청년생산자들! 유황누룩을 만들어 지역 생산자들에게 공급하다.

- 분상 유황 발효물(유황 누룩) 만들기

유황 누룩은 한국발효농업연구소 김현남 교수의 전통발효기술(유황 발효 농법)을 활용한 농자재로, 뿌리병 예방 및 치료, 양분(유황) 공급 효과, 착색 및 맛 향상, 식물체 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올해로 2년째 충북북부연합회 청년생산자들이 유황 누룩을 만들어 지역의 한살림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 자세한 문의를 충북북부연합회 김준석 실무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010-7185-9487)



충북북부지역 청년들(왼쪽부터 최순중, 박진영, 김준석(실무자), 김기식, 허문성)

■ 유황(황黃, sulfur)의 효용성

- 유황은 살균 효과가 탁월하다. 농가에서는 토양 개량용으로 사용하고 과수농가에서는 살균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농자재이다.
- 유황은 황함유아미노산인 메티오닌, 시스테인의 주요한 원소이다. 이 황함유아미노산은 농작물의 색, 맛, 향을 생성하는 중요한 아미노산이다. 따라서 양파, 마늘에 있어서 필수 비료성분이다. 그리고 감자나 고구마 전분 작물의 맛을 내는 데 있어서도 주요한 비료성분이다
- 황은 그 자체로 있을 때는 pH가 그리 낮지 않으나, 토양에 녹아 황산기를 갖게 될 때에는 강한 산성을 띄게 된다. 이에 블루베리 작물의 경우 산성토양 조건에서 생장에 필요한 영양요소들을 쉽게 흡수할 수 있어 주요 자재로 쓰일 수 있다.

- 가장 오래된 천연살균제
- 파우더 형태의 "살포 유황"은 포도 딸기와 많은 채소, 그리고 기타 다양한 종류의 작물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천연살균제
- 흰가루병 뿐만 아니라 흑반병까지 광범위하게 효과적
- 유기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유황은 가장 중요한 천연살균제
- 바이오유황(생물학적으로 생산된 수용성 유황)은 유기재배에 적용

<위키피디아 참조>

■ 유황 발효(유황 누룩)의 필요성



- 유황은 불용성(액체에 녹지 않는 성질)이며 게다가 식물이 직접 흡수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양 미생물이 수용성 물질로 전환하는데 이때 식물이 흡수할 수 있다.
- 유황은 기타 식물의 필수 원소 특히 질소와 인산의 흡수력을 향상시킨다. 일반 유황을 바로 사용하면 토양이 산성화 될 수도 있고, 물에 불용성이어서 흡수에도 문제가 있다.

■ 유황 누룩 만들기

1) 재료

- 유황 50kg, 맥반석 40kg, 미강 40kg, 당밀 4리터+방선균 2kg+EM원액 2kg+물 50리터, 이스트 1kg (실용 발효배합기를 사용할 경우 최대량임)



- 구입처 : 방선균 - 한국발효농업연구소 / EM원액 - 충주농업기술센터

2) 발효방법

- 유황을 걸름채를 이용하여 가루로 만든다.(교반기를 활용하면, 뭉친 유황을 잘게 부숴야 함)



덩어리진 유황을 손으로 잘게 부순다

- 위 재료를 혼합하여 잘 섞어 준다.(맥반석 가루는 독을 완화시키고 중성으로 만든다)



①유황+맥반석+미강+이스트 가루를 넣고 혼합한다.

②당밀 4리터+방선균+EM원액+물을 넣고 혼합한다.

③유황 혼합 가루①와 당밀 혼합액②을 넣어 잘 섞는다.

■ 유황 누룩 사용 방법

- 기비 : 망 고르기 작업 전에 100평당 20kg를 두둑 위에 살포하고 흙과 20cm 정도 섞이도록 혼합하거나 표토층에 뿌리고 평탄작업을 한다.
- 과수 : 1주당 약 500g을 뿌리 주변에 살포, 어린 묘목은 약 200g 살포한다.

■ 실제 사용 사례

1) 한살림 유기농 블루베리(음성공동체 정구홍·최연서 생산자 농장)

- 재배면적 : 만 평
- 유황 누룩 사용 시기 : 10년(김현남 교수의 지도를 받아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
- 유황 누룩(퇴비 형태로 만들어 사용함), 유황 액비, 어분, 골분을 활용한 아미노산 활성액비 등을 사용함
- 만 평에 원재료비 500백만 원으로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
- 블루베리의 생육에 적합한 토양 pH는 4.3~5.3이며, 음성 블루베리 농장은 토양 pH가 4.5이고 매년 시비처방서에 나오는 pH를 기준으로 유황량을 조절한다고 함
- 재료 : 유황 1포(25kg)+흙살림 균배양체+골분+어분+맥반석+미강+EM+이스트+방선균=150kg 정도의 퇴비량을 만들
- 매년 위 재료의 일부(20kg) 남겨 두어 종균으로 사용함. 매년 만들 때 종균을 넣어주고 있음
- 살포 시기 : 4월 초
- 뿌리는 양은 100kg를 200~300주에 뿌린다고 함
- 효과 : 블루베리 맛, 향이 좋아짐. 생산량은 나무당 7~8kg 정도 됨(12년생)

2) 한살림 저능약 복숭아(충주공동체 이종국 생산자 농장)

- 재배면적 : 3,970평
- 2020년에는 무름병이 심했지만, 이 토양개량제를 사용한 후에는 단단하고, 맛이 좋은 복숭아를 생산하게 됨. 반품율도 적어짐. 매년 사용할 계획임

■ 충북북부연합회 청년생산자들이 유황 누룩을 만들어 공급하는 가격을 안내합니다.

- 시중 판매 가격 : 20kg/55,000원
- 충북북부연합회 청년생산자들이 만들어 공급하는 가격 : 20kg/25,000원
- 올해 2021년에는 한살림 생산지 7농가에서 전체 3.1톤 정도의 주문을 받아 유황 누룩을 만들어 공급할 예정입니다.

먹거리 나눔 활동을 제안한다 '한고람 나눔 운동'



곽현용 한살림생산자연협회 사무처장

세상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연파괴로 인한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는 일상이 되어, 그 직접적인 피해는 농민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생산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고 농민 생존의 문제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코로나-팬데믹 상황은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으며, 도시 지역과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0여 년 간 생명 농업을 통해 도시 소비자들과의 삶과 생명을 지켜왔던 한살림 생산자들은 자신의 농업 안정성과 지속성을 마련하기에도 벅찬 현실 속에서도, 도시 이웃들의 어려운 삶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하려는 마음 또한 놓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의 심정은 어려운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살림 생산자 운동의 본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의 한 부분을 도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활동을 생각하였고, 2021년 한살림생산자연협회의 활동 계획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책임생산의 원칙하에 일반적으로 약정량의 12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해 작황에 따라 생산량의 변동이 있지만, 우리가 마음만 모으는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 출하 외에 남는 물품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또한 온전한 물품임에도 출하 기준 외라든가 자연재해로 인한 일부 흠집이 있는 물품들도 발생합니다.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생산자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며 거름과 연료, 생산자재 등 비용과 에너지가 들어간 귀한 물품입니다. 농산물이 부족하고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나누어져, 버려짐 없이 쓰이는 것이 모든 생산자들의 바람이자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시각을 넓혀 지구적 현실을 돌아봅니다.

2016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한해 16억t (전체 생산 가공된 먹거리의 32%) 정도의 먹거리가 버려진다고 합니다. 버려지는 먹거리를 돈으로 환산할 경우 1조 달러(약 1148조 원)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전체 인류가 생산하는 먹거리의 3분의 1 정도에 달하는 양입니다. 지구 전체 차원에서 먹거리 생산·가공·유통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방출 총량의 1/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기후위기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구 전체 구성원 중 약 1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먹을거리 부족과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순된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돈벌이와 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제도가 만들어낸 비인간적인 현실의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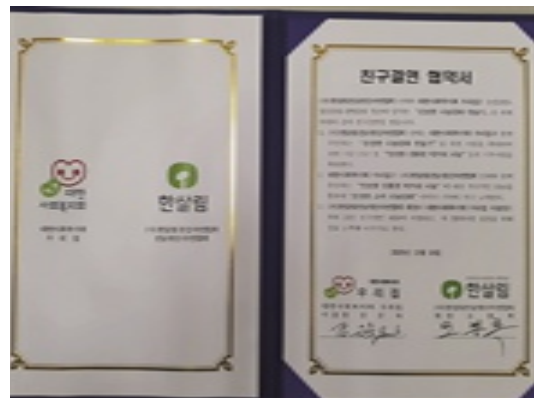
애초 한살림의 마음은 이런 세상을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서로 돕고 조화롭게 사는 세상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한살림 생산자들의 물품 나눔 활동이 기후위기-코로나 위기 시대, 생산자와 소비자, 농촌과 도시의 교류와 협동운동의 새로운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한살림의 '밥 운동'이 확대되고 먹을거리 돌봄과 결합된 새로운 도농교류 활동으로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생산자들이 마음을 내고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생각은 하였지만 막상 하려면 품이 들어가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조직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역운영위와 공동체 차원에서 논의하고 의견들을 모아나가며, 이에 기초해 생산자별로 작목별로 나눌 수 있는 품목이나 양들을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한살림 소비자들과도 같이 의논하고 한살림 연합과도 운영방안을 함께 마련해서 한살림 전체 차원의 지속적인 활동 체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우선 먼저 마음을 내신 생산자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각기 자기 지역에서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곳은 나누고, 더불어 수도권 지역과의 나눔을 시범적으로 하나 둘 늘려 나가려고 합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세상이 어렵다 보면 내 안으로 위축되고 나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려울수록 나를 넘어 이웃을 살피고 손을 잡아 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한살림 생산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연합회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와 자매 결연을 맺고 농산물품 후원 및 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살생과 폭력·독재에 저항하는 미얀마 민주화운동!

“우리가 미얀마다! 한살림생산자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미얀마는 1962년 군부가 쿠데타에 성공한 이후 사실상 모든 권력을 장악하였다. 1988년에 랑군(지금의 양곤)에서 항구 노동자들의 파업을 시작으로 군사정권 퇴진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8888 항쟁)가 일어났으나 당시 네 윈 장군이 이끄는 군사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1,000여 명이 넘는 시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으며, 10,000여 명이 실종되었다. 결국 네 윈 장군은 사임하였으나, 소마웅 장군이 이끄는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다시 정권을 강탈했다. 신군부는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복수정당제 아래 민주적인 총선거를 약속했다. 이에 1990년에 총선거가 치러졌고,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신군부는 선거 무력화를 선언하고 아웅산 수치를 가택 연금한다. 그 후 2016년 총선에서 정권을 내주는 했으나 군부의 영향력은 여전했다. 미얀마의 헌법상 통수권자는 군부가 임명한 총사령관이고, 의회 의석의 25%를 군부가 임명하다 보니, 대통령과 총리는 실질적으로 군부에 명령할 권한이 없게 된다.

2020년 11월에 치러진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이 군부가 임명하는 의석 25%를 제외하고 75%의 의석 중 83.2%를 차지하면서 전체 의석의 62.4%를 확보하면서 독자적인 정부를 구성할 권리가 생겼다. 미얀마 정부는 이 힘을 바탕으로 군부가 25%의 의회 의석을 할당해주는

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군부는 이를 거부하고 반발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다.

현재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와 원민 미얀마 대통령을 구금하였고, 1년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이다. 미얀마 주요 도시로 향하는 도로를 모두 차단하였으며, 모든 공항이 폐쇄되고 은행의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지금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에 저항하며 민주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및 국내의 수많은 단체와 개인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5.18이라는 군부독재에 맞선 민주화 투쟁을 먼저 경험을 하였다. 미얀마의 현재가 우리의 과거이고, 현재 그들의 아픔과 고통은 우리와 같았다. 당신이 나이고 내가 곧 당신이라는 마음으로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
미얀마에 민주주의를!**

한살림생산자는 미얀마 민주화운동과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미얀마 민주화 운동 소식을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도록 군부가 철저히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미얀마 소식을 알리고 응원하고 지지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를 위한 모금 운동, 지지성명서, 응원 메시지 릴레이 캠페인, 부상자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 미얀마 어린이들을 돕는 활동(‘하루 한 끼를 지켜주세요’)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미얀마에 가서 돕는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지와 응원을 보내며,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는 4월 사무국장단회의, 이사회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남연합회 청년위원회가 미얀마 민주화 투쟁 응원 지지 연대활동을 제안합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금 즉시 시민 학살을 멈춰라>
<미얀마의 민주회복을 한살림생산자가 응원합니다>**

지난 3월 20일 전남연합회 청년위원회에서는 주요 안건 외 기타 안건으로, 5.18 민주항쟁과 닮아 있는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에 저항하는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응원하는 한살림전남생산자 연대활동”이 제안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 적

2021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위한 한살림 생산자의 응원과 지지활동 전개로 마음을 나눕니다.

- 하나,** 한살림 생산활동을 지속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해내자.
- 하나,** 현 미얀마의 상황을 가슴으로 부대끼며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밴드 및 기타 SNS 활동으로 마음을 모아내고 서로 리플 달고 응원 글 남기자.
- 하나,** 전남연합회 청년위가 선도하고 전남 생산자들이 동참하여 한살림 전국에 화두를 던지자.
- 하나,** 전남 시군 5.18 행사위원회와 적극 연대하자

구체적 실천 활동 3가지 제안

- 가** 차량 스티커 제작 부착(미얀마 민주화투쟁 지지 응원)
 - 차량 스티커 2500장 제작 전국 생산지 배포
 - 전남연합회 연대활동비 100만 원 지출 소요



- 나** 단체티 세트 제작 착용 2021년 생산활동 지속하기
 - 면티 2장, 조끼 1장 세트에 29,000원
 - 면티 아동용 주문 가능 장당 9,000원
 - 비용은 주문하신 분 생산자 자부담으로 진행
 - 추진은 전남 사무국에서 진행함
- 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민주평화기금 조성
 - 전남연합회 생산자 229명(2월 말 기준)
 - 목표금액 | 229만 원 1세대당 1만 원 모금활동 전개
 - 모금기한 | ~ 4월 30일까지
 - 모금액 전달 → 한살림재단 or 재한미얀마단체 → 미얀마 군부 저항 시민단체 전달
 - 전남 기금 모금계좌
 - 모금액은 공동체별로 모아서 공동체 이름으로 일괄입금 요청드리

은행 농협 (김재영) 계좌번호 302 0899 6096 31
문의 전남 사무국 김재영/고형욱 010-8618-5748 / starky5748@gmail.com

*전남연합회 청년위원회는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지지합니다.
*한살림전남생산자연합회는 전남 518 행사위원회 및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미얀마의 민주화 회복 실천 활동에 함께합니다.

everything will be OK!

2021년 3차(3월) 이사회 회의

3월 17일(수), 대면+화상회의로 진행하였으며,
30명 참석으로 3차 이사회 회의를 진행함.

2021년 2월 28일 현재, 회원이 2,268 세대임.

[주요 활동 보고 내용]

주요회의 및 업무보고

- 3월 회장단-사무국장단 연석회의 결과를 보고함.

위원회 보고

- 9차 정책위원회, 2차 전국청년위원회 대표자회의, 1차 전국여성위원회 대표자회의 결과를 보고함.

각 부문 별 보고

- 총무회계부에서 임원 등기변경 관련 내용을 보고함.
- 생산지원부에서 자주기준위원회 회의, 매실 생산관련회의, 지역생산관리자 실무자 교육, 제1차 생산안정기금위원회 회의, 유정란 생산관련회의, 사과작목모임 결과를 보고함.
- 정책기획부에서 생·소 협동형 매장 및 유기농마케팅센터 현황을 보고함.
- 교육홍보부에서 소식지 37호 발행 내용, 생산자 신입임원 교육, 두 번째 생태적 삶의 전환을 위한 깊이 있는 대화마당 계획, 여성생산자 핵심일꾼 연수 계획을 보고함.

가공생산연합회 보고

- 2차 정기총회 임원 선출 결과, 회장단 워크숍, 정기 이사회 계획, 참깨 생산 계획, 21년 물품 표시 관련 대응, 기후위기 대응, 병 재사용 개선 실행회의 계획, 돌봄 나눔 활동 계획, 살림e 전산화 계획, 산지정보 ppt개발 진행 상황, 거제사슴 상호부조 현황, 언론대응 내용을 보고함.

한살림연합 / 사업연합 주요보고

- 한살림연합은 3월 26일 서면총회 예정, 기후위기 대응 계획(남.음.제로 캠페인, 병 재사용 운동, 포장재 개선, 옷되살림운동, 공급 상사 재이용), 먹거리 기본법 제정운동 계획, 제5차 친환경 육성 5개년 계획 검토, 먹거리 공동체 추진회의 진행 계획, 유튜브 채널 활성화 계획(유튜브 5일장)을 보고함.
- 한살림사업연합은 2019년도 대비 약 27%(전년대비 0.5%) 성장, 경기도와 친환경농식품 클러스트 추진 협의 중, 3대 생협(한살림, 두레, 행복중심)과 공동브랜드 물품 취급 절차 논의, 3월 30일 대면+온라인 병행 계획을 보고함.

주요 보고 및 공유사항

- 보고 1. 안정기금 현황(2월 말 기준)
- 보고 2. 참깨 생산계획 취합 현황 보고
- 보고 3. 참여인증 추진 상황보고
- 보고 4. 폭설피해 보고
- 보고 5. 한살림 조직 이사회, 위원회 및 회의 참여 명단 보고
- 보고 6. 정책위원회 구성 현황 보고
- 보고 7.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 추진(안)

[의결안건]

제1호 안건 회원 가입 승인의 건

제안 내용 경남연합회 논두령공동체 김용환(정계영) 외 12세대의 정회원 가입 승인을 요청함.

[경남연합회] 고성 논두령공동체 김용환(정계영) 김수현(김순희) 이병주(강현미) 함양 물레방아공동체 김순금 거창 산하늘공동체 고재천(정하나) 정규송(김이랑) 하동 삼진강공동체 이종석 거제 한울타리공동체 백찬기(임동순) 합천 해가람공동체 고동의(박희영)

[경기권역] 안성 고삼공동체 최창선 파주 천지보은공동체 성찬 이철훈 포항수

결정 내용 원안대로 승인함.

제2호 안건 청년생산자 월급제 연구조사 실행의 건

제안 내용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과 육성은 중요한 과제이며, 청년생산자를 대상으로 약정액의 70% 범위 내에서 월급제로 선지급하여 기초생활을 안정화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2030 세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수요조사 및 물품 결제 방안 및 필요자금 조성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임.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함.

결정 내용 원안대로 승인하며, 조사 대상을 40대까지 확대하여 실행하기로 함.

제3호 안건 전남연합회 천지인영농조합법인 긴급대여금 지급 승인의 건

제안 내용 2020년에 장마와 폭우 피해로 전국적인 참깨 생산량 급감으로 수급이 불안정하여 가공생산지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천지인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자금(참깨 원물 대금 정산)으로 6개월간 무이자로 56,880,000원의 긴급대여금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함.

결정 내용 원안대로 승인함.

[논의안건]

제1호 생산안정기금 보완 방안 검토의 건

제안 내용 “과수품목 보상 지원율 1/2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보험 가입이 안 되는 필지 및 품목의 경우에 대한 별도기준 필요, 생산안정기금의 부

족한 부분을 작목별로 자체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소농에 대한 새로운 집행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어 생산안정기금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주요 의견

- 소규모 과수 농가는 생산안정기금 1/2 적용하는 것은 효과가 미미한 측면이 있음.
- 생산안정기금을 농사 피해 부분에만 국한하여 적용하고 있음. 기피 작물의 영농기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후위기 등으로 생산안정기금의 규모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목별 자조금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함.
- 생산안정기금은 소농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가 많음. 현재의 소농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

제2호 잉여농산물 나눔 활동 추진방안 검토의 건

제안 내용 생산지의 잉여농산물을 도시지역의 먹거리 돌봄 활동과 결합하여 새로운 생·소 협동 및 도농교류 활동으로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생산자 조직화, 물류체계 등의 다양한 검토가 필요함.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주요 의견

[활동의 의미]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잉여농산물을 나누는 것은 “밥운동의 사회화”를 실천하는 좋은 사례임.

[기대효과]

지역살림운동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돌봄 영역과 잉여농산물 나눔 활동이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추진방향]

- 각 공동체별로 지역의 단체 등과 자매결연 맺기 등을 통해 나눔 활동 전개.
- 지역의 이웃(지역의 단체나 지역한살림 등)과 연대하여 나눔 활동 전개.
-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 조직적으로 진행할 경우 이에 걸맞은 시스템 구축 필요.
- 각 지역별 사례(자매결연을 통한 나눔, “나눔냉장고” 사업 참여, 미혼모 가정 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자활후견기관 물품 후원 등)의 조사 및 발굴 필요.



2021년 청년·귀농 정착 지원사업 공고

한살림생산자연합회의 '청년·귀농정착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본 지원사업은 경제적 기반이 약한 청년·귀농자의 영농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며 영농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 시범사업(예산 1,500만 원)을 시작으로 이듬해 2019년까지 시행되었으며 2018년 5명(총 1,500만 원), 2019년 4명(총 1,200만 원)의 청년·귀농자에게 총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청년·귀농 정착 지원 사업을 재개하며, 각 지역 사무국을 통해 접수받고 전국청년위원회 대표자회의를 통해 검토 후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이사회(5월)에서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본 지원사업에 관심 있으신 청년·귀농자 분들께서는 각 지역 사무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살림생산자연합회는 청년·귀농자 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여러 정책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

- 귀농자 중 50세 미만의 귀농인 및 경제적 약자
- 귀농인 초기 정착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 우선 지원 원칙
- 지역공동체와 관계를 맺는 준회원, 예비회원, 가입대상자 등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2021년 4월 23일(금)까지
- 접수처 각 지역 사무국



지원내용

- 지원금액 예산 한도(2,000만원) 내에서 차등지원 (1곳당 1,000만원 이내)
- 농지 임차료 지원(하우스, 노지), 퇴비 구입비용 지원(유기농 퇴비), 농자재 구입비용 지원(비닐, 자재 등)



선정과정

- 접수 각 지역 사무국
- 검토 전국 청년위원회 대표자회의
- 최종 선정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이사회(5월 예정)

되살리고 나누는 마음, 옷되살림운동! 한살림 생산자도 함께 합니다!



옷되살림운동은 더 이상 입지 않는 헌 옷을 모아 판매한 수익금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지원하는 한살림 기후위기대응 생활실천운동입니다. 2017년 시작해 매해 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422톤의 옷을 모아 3,060t의 탄소를 감축하고 3,376,000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 모은 옷은 국내 중고의류 수출업체에 판매해 그 수익금 중 50%는 한살림 재단을 통해 파키스탄 알카이크 학교에 전달하고 나머지 50%는 옷되살림 기금으로 적립해 국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활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웃을 돕고 지구를 살리는 생활실천운동인 옷되살림 운동에 한살림 생산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살림 생산지 참여방법

- | 각 지역 사무국에 공동체별로 참여신청을 합니다.
- | 참여 신청시 옷모음함 및 전용 비닐(1장당/15~20kg의 옷 보관 가능) 필요 수량 요청합니다.
- | 옷모음함에 모은 옷은 지역사무국과 협의하여 안성물류센터로 입고합니다.

옷 모음 기한

- | 2021년 4월 말까지

담당자

- | 지역 사무국 각 지역 사무국장
- | 사무처 정책기획부문 정철주(☎010-8991-5952)



※ 옷되살림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살림연합 소식지 643호(4월호)를 확인해주시고, 공동체 별로 모은 옷을 안성물류센터로 입고하는 방식은 필히 지역사무국과 협의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덜 쓰고 덜 버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환경과 후손들을 생각하자.



강원연합회 횡성 공근공동체 안향산 생산자

안녕하세요. 한살림 최초 생산자인 횡성 공근공동체 안향산 생산자입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인 봄을 맞이 했습니다. 6월 중순 조합원님들 곁으로 가는 중파가 구정 무렵 씨를 넣었는데 벌써 새파랗게 싹이 나와 저희 하우스엔 봄이 한창입니다. 따사로운 햇살, 푸릇한 새순이 돌아나는 것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손이 많이 가는 농사를 짓다 보니 마음 한편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19로 인해 노동의 손길이 부족할 것 같은 걱정에 한숨이 터져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해보야죠. 그것이 한살림 조합원님들과 약속이고, 생산자들은 조합원님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루빨리 모두가 한데 어울려 웃고 떠들며 신나게 일하고 또 마음을 나누며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횡성 공근공동체는 역사가 오래되었고 한창 전성기를 누리며 한살림운동을 하였던 공동체 생산자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농촌이 고령화가 된 상황에 다행히도 지금은 몇 분의 젊은 생산자분들이 새롭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한살림 생산지로 공근공동체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하나 전국에 새로 들어오시는 생산자분들과 소비자분들이 횡성 공근공동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생산자들이 힘을 합쳐 10년 넘게 한살림 물품 구매 활동과 도농교류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며 조금이나마 횡성 공근공동

체를 알리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최근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여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옆에 계시던 어떤 할머니 한분이 티슈 한 장이라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 조금씩 찢어서 쓰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흔히 쓰는 휴지 한 장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아껴서 사용하고, 버리는 것을 최소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집에 있는 26년 된 싱크대를 바꿀 때가 된 것 같아 새로 구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는 바꾸지 않고 조금 더 써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생산자들은 그동안 열심히 땅과 물을 살리고자 오랜 시간을 들여 친환경 농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코로나 19위기라는 생명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부터라도 덜 쓰고, 덜 버리는 생활을 습관화해서 환경과파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 후손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을 물려줘야 하니 말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크게 드러나지 않는 실천이지만 개인과 공동체 활동 속에서 환경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것들이 모여서 조금이나마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한살림은 어머니 같은 곳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 이 땅의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위해 우리 횡성 공근공동체와 생산자들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공생산지 소식

‘오랜 기다림, 느리지만 가치 있는 먹거리를 만듭니다.’ 빠름보다 바름으로 전통된장 방주명가



강형국 가공생산연합회 반찬양념분과 대표 방주명가영농조합법인 이사 / 방주공동체 총무

“빠르게, 신속하게, 간편하게” 속도가 가치를 앞서는, 빠름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살림은 빠름보다는 바름을 추구하며 느리지만 함께 살자는 운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처럼 천천히 생명활동을 존중하며 만들어지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한알의 콩이 밥상에 올려지기까지 1년 이상이 필요한 먹거리, 바로 전통된장입니다.

2021년 ‘참발효어워즈’에서 한살림 된장(산골된장, 우리콩된장), 고추장(솔뽕고추장)이 각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참발효어워즈는 좋은 먹거리 순환을 위한 문화 캠페인부터 교육과 연구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슬로우푸드문화원에서 주최한 국내 유일의 발효식품 전문 어워즈입니다. 누구나 맛있고(Good), 깨끗하고(Clean), 공정한(Fair) 음식을 누릴 수 있도록 좋은 먹거리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심의한 행사여서 뜻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참발효 어워즈 한살림 생산지 수상

전통 장은 미생물과 곰팡이의 작용으로 지역이나 기후에 따라 다양한 풍미와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맛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금년에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장을 담근 이래로 지금

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방식과 계절에 따라 맛이 변화함에도 기다려주고 꾸준히 이용해 준 소비자 덕분에, 서로 밥이 되어주는 관계가 지속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통을 지켜내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발효식품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소비자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을 만드는 일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혈을 기울이는 장인정신이 필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공동체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0년간의 긴 세월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서로 마음이 통하고 뜻이 모아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장은 농사와 닮은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장은 정월에 담아 이듬해 여름 녀에 가야 포장(수확)을 할 수 있으니 말이지요. 콩은 봄·여름·가을·겨울 씻기고, 삶기고, 으깨지고, 절여지는 인고의 시간을 지나며 향산화 성분과 영양이 풍부한 된장으로 거듭납니다. 이러한 장을 만들면서 배우는 것은 ‘발효는 기다림의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장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도와 연구의 결과물은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경북 농업기술원의 전통 장 연구팀의 도움으로 메주를 만드는 순간부터 온도도와 무게, 질소, PH, 산도, 영양성분 등을 꾸준히 검사하고 기록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해왔습니다. 미신에 의존하던 과거의 발효방식과는 달리 과학적 방식을 통해서 가장 맛있는 장의 표준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도 생명이고, 생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에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으고, 매주 한 장 한 장 소중한 생명을 다루듯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갖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며 만드는 손길에서 좋은 물품이 만들어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 저녁 식탁에 빠질 수 없는 먹거리는 당연 된장입니다. 한여름엔 풋고추와 된장만 있으면 밥 한 그릇 딱딱 먹는 아이들을 보며, 장을 만드는 생산자로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민족 고유의 전통식품을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지속적으로 먹어야 전통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과 효율을 따지는 시대를 살면서 장을 담그는 청년 생산자로서, 한살림 미래의 먹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전통 장의 가치를 이어가며, 소비자들이 찾아주고, 인정해주는 먹거리는 충분한 소통과 공감의 이어질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전통 장을 홍보하기 위해 매장 홍보활동을 월 2회 계획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세 차례 정도 진행 후 이어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주할 수 없기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담가 주시던 장”을 그리워하는 시대를 살며, 그나마 오가는 정을 코로나가 막고 서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그리워하듯,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다시금 만남과 연결이 활성화되어 장맛 나는 세상, 살맛 나는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꿈꾸어 봅니다.